

오영주 장관, 벤처캐피탈(벤처투자사) 업계와 세계적(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향 논의

- 세계 5위권을 넘어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야 할 시점, '세계적(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
- 한국개발연구원,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모태펀드 역할' 연구 중간결과 발제, 모태펀드 출자 증가는 전체 벤처투자의 5.2배 증가 유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30일(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빌딩에서 벤처캐피탈(벤처투자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벤처투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 청사진인 「중소기업 도약 전략」의 후속으로 벤처 투자 분야 세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앞서, 벤처투자 업계 및 학계와 함께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가 세계적(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격적인 자유토론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구자현 선임연구위원은 수행 중인 연구의 중간결과로 '벤처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모태펀드 역할'을 발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벤처투자 유치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총자산 대비 매출액(연 +13%) 및 영업이익(연 +5%) 추가 증가 등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통념을 국내 벤처투자 시장 데이터로 한번 더 입증하였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민간 자금 유입효과도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14~'23) 모태펀드 출자 증가 시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5.2배 증가하였다. 모태펀드 자펀드에 한정하면, 모태펀드 출자금 대비 자펀드 투자 규모는 과거 10년간('04~'13) 1.3배에서 최근 10년간('14~'23) 1.7배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미국,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전세계 5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87년 벤처투자조합 제도화 이후 청산된 펀드는 연평균 9%의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한국이 벤처투자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높은 수익률을 거뒀은 성과는 도전을 주저하지 않은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노력과 이를 믿고 지지해준 벤처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세계 5위권을 넘어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향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유치하여 세계적(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국제적(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이권재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박민지 (044-204-7712)
			주무관	진명철 (044-204-7716)
			전문위원	박철순 (044-204-7618)

□ 행사 개요

- (일시) '24. 9. 30(월), 14:00~15:20
- (장소) 광화문빌딩 20층 HJ비즈니스센터 세미나룸 A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 (참석) 중기부 장관, 벤처캐피탈(9개사), KDI 선임연구위원,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한국벤처투자 부대표 등 15명 내외
- (주요내용) 모태펀드의 민간자금 유입 효과 등 연구결과 발제,
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향 논의

□ 세부 일정

※ 전체 일정 언론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사진촬영 및 참석자 소개	사회: 벤처투자과장
14:05~14:10	5'	■ 모두 말씀	장관
14:10~14:25	15'	■ 발제(안): 벤처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모태펀드 역할	KDI 구자현 선임연구위원
14:25~15:15	50'	■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5:15~15:20	5'	■ 마무리 말씀	장관